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 트럼프 '탄핵 열차'에 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달 24일 권력남용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전격 선언했고, 이에 따라 6개 관련 상임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의회는 지난 주말 백악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역사상 세 번밖에 없었던 대통령 탄핵의 칼날이 트럼프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을 미국 정치는 요동칠 것이며,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정세 또한 불안정하게 흔들릴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중재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갖고 있다. 트럼프가 하원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유는 미국 정치 평론가들이 지적한 대로 그의 '제멋대로 외교'가 초래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2020년 대통령 재선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이 눈엣가시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방안을 우크라이나에서 찾았던 것 같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새로 선출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

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바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여했고, 그의 아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의 임원으로 일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 원조 집행을 미루는가 하면, 젤렌스키의 백악관 방문과 바이든 조사를 연계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회는 내부 고발자와 관련 공직자의 증언으로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보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2006년 민주당 원내 대표로서 당시 공화당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요구가 나왔을 때 반대했던 인물인데, 이번 트럼프 탄핵 추진에는 단호한 자세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하원의 분과위원회별 조사가 완료되면 법사위원회가 탄핵안을 작성하여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안은 통과되어 상원에 넘어간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연방 대법원장이 심리를 주재하고 재적 100명의 상원의원 3분의 2, 즉 67명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와의 큰 점은, 한국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유무죄 결정을 내리는 반면,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유무죄 판정은 상원이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체계에 비유하면 하원은 검사 역할을, 상원은 판사 역할을 맡는 것이다.

1789년 1대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이래 230년간 45명의 대통령이 재직했지만 상원의 탄핵 유죄판결로 대통령 직을 상실한 사람은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표결 직전 대통령 직을 자진 사퇴했다. 17대 앤드루 존슨과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상원의 반대 표결로 살아났다.

미국 하원의 의원 수는 435명이며, 그중 민주당 의원은 235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이 53명으로 다수당이다. 트럼프에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공화당 의원 20명이 민주당에 동조해야 한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날뛰듯 하는 정치 스타일로 볼 때 미국 정부의 정책 추진

이 크게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 있다. 하원의 탄핵 조사가 착수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야당 인사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가짜 뉴스 미디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정부가 조 바이든을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나쁘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조사를 공식 발표한 이후 지난달 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 찬성이 51%, 탄핵 반대가 44%로 나왔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등 미국 선거를 겨냥하여 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안보의식이나 정서에 반하는 일임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악명 높았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이 닉슨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때 꺾림이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탄핵 찬성이 38%, 탄핵 반대가 53%로 국민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나 하원 조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몇 달 만에 탄핵 찬성 41%, 탄핵 반대 41%로 급변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심은 조변석개다.

트럼프 탄핵 정국은 1년 후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상하양원 선거에 큰 변수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사다. 이성을 잃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돌출적 정치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 특히 탄핵 소송돌이가 트럼프·김정은의 북한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지 한국인들에겐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 社 說

### 아리송한 장성군과 군의회 의장 집안

장성군이 마을 홍보관 부지로 군의회 의장의 토지를 매입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장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앞으로 도로가 뚫리는가 하면 도로폭이 창고앞에서 갑자기 넓게 개설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의장 부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정부미 보관창고 사업에 뛰어들어 적지 않은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개를 갸웃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장성군과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무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해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짹짹' 냄새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집행부와 의회간 애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집행부는 의회 실력자에게 이권사업 등의

특혜를 주고 의회는 집행부의 일에 적극 협조(?)하는 방식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의장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만에 하나 이같은 일이 집행부와 의회의 밀착 또는 유착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이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권행동에 급급해 이같은 일이 자행됐다면 이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특히 이같은 일이 현 군수가 들어서면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군민들과 시민단체는 이같은 일에 분노하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장성군과 차상현 의장은 오비아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차 의장 집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평 야요을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모자람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자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과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속담은 넘치면 자만해지고 풍부하니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경고이며 모자라면 겸손해지고 더욱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것

인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의 기준틀을 꼭 짜놓고 그 속에서 자기의 방식과 논리에 정형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남의 기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항상 내 기준이

옳고 남의 기준과 생각은 별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며 생활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아집과 편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벽을 만들어 가는지 알면서도 그 벽속에서 나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해질까봐 그 벽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벽속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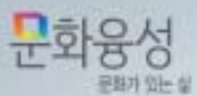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